

어머니의 치과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김 수 경
경북대학 치위생과

Analysis of Factors that Influence to Dental Utilization of Mothers

Soo-Kyung Kim

Dept of Dental Hygiene, Kyungbok College, Pocheon-shi, Gyeonggi-do 487-717,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effects of mothers' socioeconomic features, and knowledge and behavior of oral health on experience and purpose of using dentistry. By survey to 103 mothers of 5-6 year old children, who use day care centers in seoul, the results are obtained as follows: 1. As for the rate of experiencing dental care classified by its purpose, 56.7% for dental treatment, 23.3% for regular check-up and 20.0% for precaution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orrelativity between mothers' socioeconomic features and knowledge of oral health and experience of using dental care, while the lower rate of using dental floss, the higher rate of experiencing dental care($p < 0.01$). 3. In respect of correlativity between mother's socioeconomic features and purpose of using dental care, the purpose of regular check-up was high in a group of mothers between 33 and 35 years old(71.4%) by ages and in a group of mothers who graduated from college(57.1%) by academic background($p < 0.05$). 4. In correlativity between mothers' behavior of oral health and purpose of using dental care, the result showed that the higher the rate of using dental floss was, the higher the rate of experiencing dental care for a regular check-up was($p < 0.001$) and the higher the rate of using fluoride dentifrices was, the higher the rate of using dental care for cure was($p < 0.05$). 5. Multiple regression based on dependent variable of experience in using dental care showed that average monthly income(less than 2,500,000 won) was significant explanatory factor with 65% of explanatory variance. On the other hand, multiple regression based on dependent variable of purpose of using dental care showed that vocation(professional job) and age(between 33 and 35 years old) was significant explanatory factor with 70% of explanatory variance for a regular check-up, age(between 33 and 35 years old) and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2,500,000 won) was significant factor with 78% of explanatory variance for precaution and age(less than 32 years old) was significant explanatory factor with 33% of explanatory variance for treatment.

Key words Dental utilizatio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서 론

오늘날 사회·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의식주가 풍족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복지사회의 실현 정도는 그 사회 구성원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인간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대인은 많은 건강문제를 정형화된 의료기관을 찾음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¹⁾. 따라서 개개인이 추구하는 의료이용행태에 대한 이해는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구강건강은 기본적으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날 인간생활의 기본요소로 취급되어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²⁾.

치과의료이용행위를 포함한 구강건강관리행위는 크게 질병치료행위, 질병예방행위로 구분된다³⁾. 2000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하면 의료기관별 외래의료이용 목적에서 치과의 경우 1998년도에는 치료목적이 92.0%이고, 예방목적이 8.0%를 나타냈었지만 2000년도에는 치료목적이 79.3%이고, 예방목적이 20.7%를 나타내 예방목적 치과이용률이 다소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⁴⁾. 특히 구강병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다른 질병에 비하여 질병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을 위한 치과의료이용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구강건강행위는 개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터전이며 구강건강측면에서도 공중구강보건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어머니란 자녀를 가진 여성을 지칭하며, 여성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특별한 인류학적기능을 가지고 있다⁵⁾.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구강병 예방행위는 어머니 자신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어서나 아동의 구강병 예방행위를 좌우

†Corresponding author
H.P: 016-294-0405
Fax: 031-539-5349
E-mail: lalikim2@hanmail.net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듯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정의 건강을 보살피는 특수하면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구강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⁶⁾. 선행연구에서도 어린이들의 구강병 예방행위를 생활화하기 위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프로그램을 시행 시, 부모의 참여가 있었던 어린이들 집단이 부모의 참여가 없었던 어린이들보다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구강상태의 비교 시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었다⁷⁾. 또한 Blinkhom⁸⁾은 구강보건행동을 교육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작 시기는 처음으로 사회화과정을 경험하는 유치원 아동들이고, 자녀의 구강보건행동은 어머니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Chen⁹⁾은 모친의 사회계층과 소득수준 및 보건지식이 자녀의 가정구강보건행위와 예방지향적 구강진료수령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 및 신념 등이 자녀의 구강보건행동이나 신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행해져 오고 있다. 박득희 등¹⁰⁾도 어머니의 건강신념이 자녀의 건강신념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예방적 치과 방문 횟수에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가 아동의 구강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구강건강행위에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의 구강건강행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도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치과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특히 만5-6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녀의 구강건강행위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서울특별시 소재한 2개의 어린이집을 임의선정하고 어린이집에 내원하는 만 5~6세 유아를 자녀로 둔 120명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03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개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협조를 얻어,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어머니들에게 발송하였고, 10일 동안 회수하였다. 조사 시 사용한 설문 문항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과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정도는 7개의 측정항목으로 불소와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에 관한 문항은 일일 잇솔질 횟수, 치실 사용여부, 불소함유치약 사용여부, 간식섭취여부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에 따른 분포를 빈도분석(Frequency)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에 따른 치과 의료이용경험과 이용목적의 상관성을 알아보기로 χ^2 검정과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치과의료이용경험과 치과의료이용 목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에 따른 분포 <Table 1>와 같다. 연령분포는 33~35세 이하가 39.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32세 이하 26.2%, 36~39세 18.4%, 40세 이상 15.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의 경우 주부가 65명(63.1%)으로 특정 직업이 있는 어머니 38명(36.9%)보다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소득은 251~350만원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구강보건지식 점수는 14점 만점에 7.53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강보건행동의 경우 일일 평균 잇솔질 횟수는 2.47회이고, 불소함유치약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수는 71명(68.9%)이었으며, 간식섭취는 한다고 응답한 수가 98

Table 1. Distribution by the mother'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of dental care

Variable	Response	N(%)
Age	≤ 32	27(26.2)
	33-35	41(39.8)
	36-39	19(18.4)
	≥ 40	16(15.5)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30(29.1)
	College graduate	14(13.6)
	University graduate	51(49.5)
	Postgraduate	8(7.8)
Vocation	Specialists	26(25.2)
	General office worker	9(8.7)
	Self-employed	3(2.9)
	Housewives	65(63.1)
Monthly income	≤ 2.50 million won	18(17.5)
	2.51-3.50 million won	32(31.1)
	3.51-4.50 million won	22(21.4)
	≥ 4.51 million won	31(30.1)
Score of dental care knowledge ¹		7.53±3.19
Daily tooth-brushing frequency ¹		2.47±0.52
Use of dental floss	Yes	23(22.3)
	No	80(77.7)
Use of fluoride toothpaste	Yes	71(68.9)
	No	32(31.1)
Eating snacks	Yes	98(95.1)
	No	5(4.9)
Experiences of dental clinic	Yes	51(49.5)
	No	52(50.5)
Purpose of visiting dental clinic ²	Periodical check-up	14(23.3)
	Prevention	12(20.0)
	Treatment	34(56.7)

¹: Mean ± SD

²: In case of the mothers who visit dental clinics (multiple responses)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of dental clinic service (N, %)

Variable	Response	Experience of Dental Clinic Service			p-value
		Yes	No	sub-total	
Age	≤ 32	10(19.6)	17(32.7)	27(26.2)	0.199
	33-35	21(41.2)	20(38.5)	41(39.8)	
	36-39	13(25.5)	6(11.5)	19(18.4)	
	≥ 40	7(13.7)	9(17.3)	16(15.5)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2(23.5)	18(34.6)	30(29.1)	0.487
	College graduate	6(11.8)	8(15.4)	14(13.6)	
	University graduate	29(56.9)	22(42.3)	51(49.5)	
	Postgraduate	4(7.8)	4(7.7)	8(7.8)	
Vocation	Specialists	12(23.5)	14(26.9)	26(25.2)	0.896
	General office worker	4(7.8)	5(9.6)	9(8.7)	
	Self-employed	2(3.9)	1(1.9)	3(2.9)	
	Housewives	33(64.7)	32(61.5)	65(63.1)	
Monthly income	≤ 2.50 million won	8(15.7)	10(19.2)	18(17.5)	0.450
	2.51-3.50 million won	15(29.4)	17(32.7)	32(31.0)	
	3.51-4.50 million won	9(17.6)	13(25.0)	22(21.4)	
	≥ 4.51 million won	19(37.3)	12(23.1)	31(30.1)	
Total		51(100.0)	52(100.0)	103(100.0)	

명(95.1%)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 5명(4.9%)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한 어머니들의 51명(49.5%)이 치과치료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34명(56.7%)이 치료의 목적으로 치과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치과치료기관 이용경험과의 상관성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치과치료기관 이용경험과의 상관성은 <Table 2>와 같다. 연령별 어머니의 치과치료기관 이용경험은 33~35세에서 21명(4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 비교에서는 대졸인 어머니에게서 29명(56.9%), 고졸 이하 12명(23.5%), 전문대졸 6명(11.8%), 대학원 이상 4명(7.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 비교에서는 주부인 어머니에게서 33명(64.7%)이 치과치료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직업이 있는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치과치료이용경험은 451만원 이상 군에서

19명(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어머니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치과치료이용 경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3.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치과치료기관 이용 경험과의 상관성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치과치료기관 이용경험과의 상관성은 <Table 3>과 같다. 치과치료 이용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의 평균 구강보건지식 점수는 7.66점으로 이용경험이 없는 어머니들의 지식점수 7.4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구강보건행동과의 비교에서는 일일 평균 잇솔질 횟수의 경우 치과치료 이용경험이 있는 군이 2.50회로 이용경험이 없는 군 2.44회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또한 치실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의 치과치료이용경험율이 33.3%이었고, 치실 사용을 하지 않는 어머니들은 치과치료이용경험율이 66.7%로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knowledge of dental health care and experiences of dental clinic service (N, %)

Variable	Response	Experience of dental clinic service			p-value
		Yes	No	sub-total	
Score of dental care knowledge ¹		7.66±3.21	7.40±3.20	7.53±3.19	0.679
Daily tooth-brushing frequency ¹		2.50±0.50	2.44±0.53	2.47±0.52	0.514
Use of dental floss	Yes	17(33.3)	6(11.5)	23(22.3)	0.008**
	No	34(66.7)	46(88.5)	80(77.7)	
Use of fluoride toothpaste	Yes	34(66.7)	37(71.2)	71(68.9)	0.623
	No	17(33.3)	15(28.8)	32(31.1)	
Eating snacks	Yes	48(94.1)	50(96.2)	98(95.1)	0.631
	No	3(5.9)	2(3.8)	5(4.9)	
Total		51(100.0)	52(100.0)	103(100.0)	

¹: Mean ± SD

**P < 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purpose of visiting dental clinic (N, %)

Variable	Purpose of visiting dental clinic					
	check-up	p-value	prevention	p-value	treatment	p-value
Age						
≤ 32	2(14.3)	0.047*	2(7.4)	0.169	9(26.5)	0.348
33-35	10(71.4)		4(9.8)		10(29.4)	
36-39	0(0.0)		5(26.3)		9(26.5)	
≥ 40	2(14.3)		1(6.3)		6(17.6)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7.1)	0.049**	2(16.7)	0.225	11(32.4)	0.119
College graduate	2(14.3)		0(0.0)		3(8.8)	
University graduate	8(57.1)		9(75.0)		20(58.8)	
Postgraduate	3(21.4)		1(8.3)		0(0.0)	
Vocation						
Specialists	7(50.0)	0.138	2(16.7)	0.414	2(5.9)	0.012*
General office worker	1(7.1)		0(0.0)		4(11.8)	
Self-employed	0(0.0)		0(0.0)		2(5.9)	
Housewives	6(42.9)		10(83.3)		26(76.5)	
Monthly income						
≤ 2.50 million won	1(7.1)	0.316	2(16.7)	0.754	8(23.5)	0.542
2.51-3.50 million won	4(28.6)		3(25.0)		11(32.4)	
3.51-4.50 million won	2(14.3)		4(33.3)		5(14.7)	
≥ 4.51 million won	7(50.0)		3(25.0)		10(29.4)	
Total	14(100.0)		12(100.0)		34(100.0)	

*P<0.05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불소함유치약을 사용하는 경우 어머니들의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은 66.7%로 사용하지 않는 어머니들 33.3% 보다 높게 나타났고, 간식섭취를 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에게서 치과의료 이용 경험율(94.1%)이 하지 않는 군(5.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4.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치과의료 이용목적과의 상관성

<Table 4>는 치과의료 이용경험이 있는 어머니들 중에서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이용목적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연령별 어머니의 치과의료 이용목적 중 정기검진율은 33-35세에서 71.4%, 학력별에서는 대졸인 어머니에게서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직업별에서는 전문직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7명(50.0%), 월평균소득별에서는 451만원 이상 군에서 7명(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또한 어머니의 치과의료기관 이용목적 중 예방목적은 36-39세에서 5명(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에서는 대졸인 어머니에게서 9명(75.0%), 직업별에서는 주부에게서 10명(83.3%), 월평균소득별에서는 351-450만원 군에서 4명(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한편 어머니의 치과의료기관 이용목적 중 치료목적의 경우는 연령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knowledge of dental health care and the purpose of visiting dental clinic (N, %)

Variable	Purpose of visiting dental clinic					
	check-up	p-value	prevention	p-value	treatment	p-value
Score of dental care knowledge ¹	8.78±3.80	0.115	7.16±2.32	0.674	6.85±3.15	0.130
Daily tooth-brushing frequency ¹	2.50±0.51	0.852	2.16±0.38	0.028*	2.52±0.50	0.466
Use of dental floss						
Yes	9(64.3)	0.000***	5(41.7)	0.087	6(17.6)	0.423
No	5(35.7)		7(58.3)		28(82.4)	
Use of fluoride toothpaste						
Yes	12(85.7)	0.144	6(50.0)	0.132	19(55.9)	0.045*
No	2(14.3)		6(50.0)		15(44.1)	
Eating snacks						
Yes	14(100.0)	0.363	12(100.0)	0.405	32(94.1)	0.733
No	0(0.0)		0(0.0)		2(5.9)	
Total	14(100.0)		12(100.0)		34(100.0)	

¹: Mean ± SD

*P<0.05, ***P<0.001

비교에서 33-35세 군에서 10명(2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에서는 대졸인 어머니에게서 20명(58.8%), 월평균소득별에서는 251-350만원 군에서 11명(3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직업별에서는 주부가 76.5%의 치료의 목적으로 치과의료이용경험을 보여 특정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5.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치과의료기관 이용목적과의 상관성

<Table 5>는 치과의료 이용경험이 있는 어머니들 중에서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이용목적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정기검진을 목적으로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의 평균 구강보건지식점수는 8.78점, 예방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7.16점,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6.85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일일 평균 잇솔질 횟수는 정기검진을 목적으로 치과의료 이용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2.50회 예방목적은 2.16회, 치료목적은 2.52회로 나타났으며, 일일 평균 잇솔질 횟수와 예방을 목적으로 치과의료 이용경험과의 상관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한편 치실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에게서 정기검진목적 치과의료 이용경험율이 64.3%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불소함유치약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어머니 85.7%, 간식섭취를 한다고 응답한 어머니 100.0%가 정기검진목적으로 치과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또한 어머니의 치과의료기관 이용목적 중 예방목적 치과의료 이용경험율은 치실을 사용하는 경우 41.7%, 불소함유치약을 사용하는 경우 50%. 간식섭취를 하는 경우 100.0%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한편 어머니의 치과의료기관 이용목적 중 치료목적의 경우는 치

실을 사용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28명(82.4%), 간식을 섭취하는 어머니 94.1%가 치료목적 치과의료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그러나 불소함유치약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경우 55.9%가 치료를 목적으로 치과의료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6. 어머니의 치과의료기관 이용경험과 이용목적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어머니의 치과의료기관 이용경험과 이용목적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Table 6>과 같다. 치과의료 이용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설명변량이 65%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250만원 이하)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 이용목적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정기검진목적의 경우 설명변량이 70%로 나타났고, 직업(전문직), 연령(33-35세)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고, 예방목적의 경우 설명변량이 78%로 나타났고, 연령(33-35세), 월평균소득(250만원 이하)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치료목적의 경우는 설명변량이 33%이었고, 연령(32세 이하)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고 찰

치아우식증은 대표적인 구강질환 중의 하나로 미취학 아동기인 유아기와 초등학교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치아우식증이 유아기에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유아들이 우식성식품인 당분함유 식품을 좋아하여 많이 섭취하는 반면에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올바르게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에서 기인되므로 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있어 부모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¹¹⁾. 특히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건강을 보살피는 특수하면서도 중요한 위치에

Table 6.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mother's dental clinic experiences and the purpose of visiting dental clinics as a dependent variable respectively

Variable	B	β	t	Sig
Monthly income (≤ 2.50 million won)	0.645	0.874	4.264	0.002
Age(≤ 32)	-0.355	-0.480	-2.345	0.041
R ² =0.651, F=9.308, Sig=0.005 Dependent variable = experience of dental clinic				
Vocation(specialists)	1.042	0.627	3.619	0.005
Age(33-35)	-1.225	-0.534	-3.080	0.012
R ² =0.700, F=11.672, Sig=0.002 Dependent variable = purpose of visiting dental clinic(check-up)				
Age(33-35)	1.000	0.856	5.721	0.000
Monthly income (≤ 2.50 million won)	0.500	0.428	2.860	0.017
R ² =0.783, F=18.077, Sig=0.000 Dependent variable = purpose of visiting dental clinic(prevention)				
Age(≤ 32)	1.727	0.576	2.336	0.039
R ² =0.331, F=5.455, Sig=0.039 Dependent variable = purpose of visiting dental clinic(treatment)				

있고 구강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유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올바른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에 대해 이해하고자,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경험과 이용목적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치과의료기관 이용경험과의 상관성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경험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 등¹²⁾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치과의료기관 이용에 직접효과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는 연구결과에 부합된다. 다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직업별 비교에서 주부인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어머니보다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김 등¹³⁾의 연구결과에서 어머니들의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치과의료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경험과의 상관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과 치과의료이용경험 간의 상관성은 치실 사용율이 낮을수록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01$), 불소함유치약 사용여부와 간식섭취여부와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치과의료 이용목적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치과의료 이용목적 중 정기검진을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 < 0.05$), 학력이 높아질수록 정기검진목적으로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직업별에 따른 어머니의 치과의료 이용목적 중 치료목적율이 주부인 어머니들이 특정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이것은 이¹⁴⁾가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및 활동불능일수가 적고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을 가진 어머니는 직장업무와 함께 가사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완벽한 주부가 되기를 바라는 사회분위기를 볼 때 치과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적다고 한 것과 같이 특정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주부인 어머니보다 치료목적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치과의료이용목적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구강보건지식에 따른 치과의료이용목적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일일 잇솔질 횟수는 예방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험과의 상관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치실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에게서 정기검진목적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01$), 불소함유치약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Chen과 Tatsuoks¹⁵⁾은 어머니의 소득, 직업, 연령, 교육수준이 예방목적의 치과방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도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이 치과의료기관 이용경험과 이용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치과의료기관 이용경험과 이용목적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는데, 분석을 위해 이용된 변수로는 어머니의 사회경제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고,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구강보건지식점수, 잇솔질 횟수, 치실사용여부, 불소함유치약사용 여부, 간식섭취 여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치과이용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설명변량이 65%로 나타났고, 월평균소득(250만원 이하)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료이용목적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정기검진의 경우 설명변량이 70%로 나타났고, 직업(전문직), 연령(33-35세)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방목적의 경우 설명변량이 78%로 나타났고, 연령(33-35세), 월평균소득(250만원 이하)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치료목적의 경우는 설명변량이 33%로 나타났고, 연령(32세 이하)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지식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개발의 부재로 정확한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평가할 수 없었고, 연구대상자가 서울시의 2개의 어린이집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특정집단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제한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이 치과의료이용경험과 이용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서울특별시 소재한 2개의 어린이집에 내원하는 만 5-6세 유아를 자녀로 둔 10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어머니의 이용목적에 따른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은 치료(56.7%), 정기검진(23.3%), 예방(20.0%)순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구강보건지식과 치과의료이용경험과의 상관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과의 상관성은 치실 사용율이 낮을수록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3.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치과의료이용목적과의 상관성은 연령별 33-35세군(71.4%)에서, 학력별 대졸군(57.1%)에서 정기검진목적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p < 0.05$).
4.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과 치과의료이용목적과의 상관성은 치실사용율이 높을수록 정기검진목적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이 높게 나타났고($p < 0.001$), 불소함유치약 사용율이 높을수록 치료목적 치과의료이용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p < 0.05$).
5. 치과의료이용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설명변량 65%로, 월평균소득(250만원 이하)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료이용목적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정기검진의 경우 설명변량은 70%이었으며, 직업(전문직), 연령(33-35세)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고, 예방목적의 경우 설명변량은 78%이었으며, 연령(33-35세), 월평균소득(250만원 이하)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치료목적의 경우는 설명변량 33%이었으며, 연령(32세 이하)이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김수남: 의과 및 치과진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치의학연구소 5(3): 71-79, 1995.
2. 남철현: 바른건강생활. 보건사회부, 1982.
3. 오윤배, 이홍수, 김수남: 모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구강건강신념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8(1): 62-83, 1994.
4. 보건복지부: 200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01.
5. 김두희, 이원식: 공중보건학개론. 학문사, pp.381-384, 1995.
6. 이재화, 나수정, 김진범: 대도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4): 509-529, 1996.
7. 이해영, 김종배: 서울시민의 가정구강보건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8(2): 526-544, 1994.
8. Blinkhom AS: Dental preventive advice for pregnant and nursing mothers sociological implications. Int Dent J 31(1): 14-22, 1981.
9. Chen MS: Children's preventive dental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socioeconomic status, health beliefs and dental behaviors. J Dent Child 53: 105-109, 1986.
10. 박득희, 이광희: 어머니의 건강신념이 아동의 건강신념과 치과의료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1(1): 345-349, 1994.
11. 이지영, 이광희, 김대엽, 조중환: 유아모친의 우유병우식증 및 치아우식증 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4(1): 220-234, 1994.
12. 김수남, 이홍수, 김대엽: 앤더슨-뉴만 모형을 이용한 여성의 예방목적 치과의료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4(1): 195-203, 1997.
13. 김지영, 남용옥: 대도시 지역 일부 어머니들의 치과의료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3(3): 143-153, 2003.
14. 이홍수: 앤더슨-뉴만 모형을 이용한 여성의 치과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8(2): 513-524, 1994.
15. Chen MS, Tatsuoka M: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n women's preventive dental behavior and dental health beliefs. Soc Sci Med 19(9): 971-978, 1984.

(Received October 29, 2005; Accepted November 24, 2005)

